

동네방네



‘경축’ 안동서 삼둥이 소 출산

안동시농업기술센터와 경북축산기술연구소에서 추진한 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임신 한 어미 소가 세쌍둥이를 출산했다. 경사의 주인공은 북후면 신전리 임영균 농가로 수송아지 2마리, 암송아지 1마리를 순산했다. 60개월 된 어미 소는 4번째 출산으로, 2019년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해 세쌍둥이를 낳았다. 소가 쌍둥이를 출산할 확률은 5% 미만으로 세쌍둥이가 출산할 경우는 1% 미만으로 극히 드문 일이다.

/안동시

완도군 기후변화 전략 ‘양식장 피해 차단’

전남 완도군이 양식장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생태원, 전남농업기술원, 대학 교수, 완도군산림조합, 완도금일수협, 완도군전북협회, 한국김생산어민협회, 전남유기농과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

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최양호 박사는 “여름철 고수온기 진도냉수대 변동에 따라 완도해역 수온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수온기 양식장의 직사광선과 자외선 차단에 의한 생물학적 효과 검토, 적조 발생 시 가두리 내 조류 소통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완도=양수영 기자

파주시 학생탐방 ‘꿈나무 체험버스’ 운영

파주시는 파주혁신교육지구 사업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여러 분야의 체험프로그램을 탐색하고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파주꿈나무’ 체험버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주꿈나무’는 학생들의 교육사업에 지원되는 체험버스의 명칭으로 2019년 12월에 파주시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명칭 공모에서 당선됐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파주혁신교육지구 사업은 ▶DMZ, 수목원, 습지 활용 생태교육 ▶오두산통일전망대 탐방 ▶역사프로그램 ▶예술협력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탐방하는 데 수반되는 이동차량을 지원한다.

//경기파주=안성기 기자 ask9990@

고양시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아파트단지 대상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액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 대비 5% 이상 감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단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률(60%)과 개별세대 참여율(40%)을 합해 평가하기 때문에 단지 내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많이 가입할수록 평가에 유리하다. 가입을 원하는 아파트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2020년 6월 말까지 가입한 단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평가받게 된다. /경기고양=안성기 기자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광주시, 고분양가 지정해제 난항

HUG·국토부, 특혜시비 등 우려
용적률 상향 등 대체안 마련 나서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중 최대 노른자위로 꼽히는 서구 중앙공원 1지구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중앙공원 1지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HUG와 국토부는 광주에 한해서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해제해 줄 경우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고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

다. 광주시는 남구 봉선동과 서구 화정동 등 지역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민간 택지개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HUG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후 HUG는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부서 간 엇박자가 나면서 광주시는 지난해 8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서구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자(㈜한양 측)이 제시한 분양가 2046만원을 승인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이면 최근 분양가 아파트와 비교해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이내(105%)에서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 중앙공원 1지구는 1554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

한양 측은 2000만원대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199.8%인 용적률을 범상 허용 가능한 220%까지 상향하는 것과 사업자가 내기로 한 1300억원대의 공원조성사업비, 공공기여금 250억원을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의 비공원시설 면적을 현재 7.8%에서 공모 당시 제안한 8.7%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은 최고 27층 층수 제한과 일조권 문제로 쉽지 않고, 비공원시설 면적 확대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심공원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국토부와 HUG를 최대한 설득 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용적률 상향과 공원조성사업비 인하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물류비 국비지원으로 기업수출 도와야”

경북도, 확대무역전략회의의 참가
포스트코로나 수출·투자 방안 건의

경북도가 수출기업에 물류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 영상으로 참가해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수출과 투자분야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경제5단체장, 수출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7개 시·도와 영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수출피해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무이자·무담보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수출회복 때까지 자금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북도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을 정부



무역전략조정회의

차원에서 전국단위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특히 물류비는 경북도가 도비 25억원을 긴급 지원해 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국비로 물류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 수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또 높은 분양가와 장기 경기침체, 코로나 사태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비수도권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전용 산단으로 지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50만㎡(15만평)를 임대전용 산단으로 지정 완료한 데 이어 구미 하이테크 밸리 국가산단 33만㎡(10만평) 추가 지정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국내북귀 기업의 투자비용 경감을 위해 부지 매입과 시설투자 비용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동일한 비율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북안동=문봉현 기자 newsmun@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슬로푸드 이강삼 대표

농식품부, 배즙 등 공동판매 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경상남도 하동군 ‘슬로푸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이강삼 대표(사진)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강삼 대표는 지역 제조업체 25개소를 법인 내 회원사로 영입해 매실·배영농조합법인 등 생산단체와 생산물수급협약을 맺고 통합가공시스템을 구축했다.

슬로푸드는 산지조직 규모화를 통해 소규모 제조업체와 생산자 간 개별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정



성을 낮추고, 대규모 계약재배를 통해 배와 매실 등 지역농산물 약 550톤을 생산하는 등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했다.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책임제를 도입했고, 하동벤처농업협회 등 지역단체와 협력해 회원사 대상 경영·식품위생·마케팅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단위 가공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

진도군, 1800억 투입
6개 SOC 사업 추진

진도군이 관광객 유치와 함께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분야별 SOC 확충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군은 국도18호선(포산~서명) 도로 확장 공사, 국도18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9건), 해안일주도로 개설사업(2건),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18건) 등 6개 사업에 2024년까지 18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솔비치 진도 개장과 연계해 관광객 유입 등 진도의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해안 일주도로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진도=양수영 기자 ysn6313@

오늘의 날씨. 6월 12일 (금) 음력: 4월 21일. 수도권 날씨 30~21°C. Map showing weather for various locations: 연천 17/30, 동두천 18/30, 가평 18/30, 파주 18/29, 서울 21/30, 양평 20/30, 용인 21/29, 평택 19/30, 안천 19/25, 수원 21/29, 백령도 15/21.